

광주수영대회 194개국 축제의 물결... 해외파 선수들 맹활약

체육기자가 뽑은 올 스포츠 10대 뉴스

광주일보 등 전국 54개 신문, 방송 등 주요 언론사 스포츠 기자가 참여해 '2019 스포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투표를 거쳐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겨 뉴스를 선정했다. 10대 뉴스를 주요 사진과 함께 게재한다.

1 류, 靑선수 첫 방어율 1위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이 2019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의 기록을 수없이 생산하며 최고의 투수라는 찬사를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개막전 선발을 맡으며 실질적인 팀 에이스로 시즌을 시작한 그는 5월 6경기 5승 평균자책점 0.59로 박찬호(당시 다저스) 이후 21년 만에 한국 선수로서 이달의 투수상을 거머쥐었다. 7월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한국인 투수 최초로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로 마운드를 밟았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 타이틀도 차지했으며 한국 투수 최다 연속(7연승) 타이 기록, 한국인 최다 연속 무실점(32이닝) 2위 기록도 세웠다. 11월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발표에서 1위표 1장, 2위표 10장 등 88점을 얻어 단독 2위 자리에도 올랐다.

2 손, 유럽축구 최다 골 경신



손흥민(27·토트넘)은 차범근(66) 전 대표팀 감독이 보유했던 한국인 유럽프로축구 역대 최다 골(121골) 기록을 훌쩍 넘어 126호 골까지 따냈다. 손흥민은 전 세계 팬에게 기억될 역사적인 장면도 연출했다. 12월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번리와 2019-2020 정규리그 16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32분 자기 진영 페널티 지역 부근에서 볼을 잡은 뒤 70m를 '폭풍 질주'하며 수비수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솟으로 골맛을 봤다. 이 득점은 '올해의 골'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에게 '손나우두'라는 별명까지 붙여줬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뽑는 '발롱도르' 후보 30명에 이름을 올렸고, 22위에 올라 이라크의 유니스 마흐무드(29위)의 기존 아시아 선수 최고 순위를 갈아치웠다.

3 男축구 U20 월드컵 준우승

정정웅 감독이 지휘한 한국 20세 이하(U-20) 남자 축구 대표팀은 올해 5월 23일부터 6월 15일 까지 폴란드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최고 성적이다. 대표팀은 스타 선수 부재 속에 큰 기대를 얻지 못 한데다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가 맞붙는 '죽음의 조'에 속해 조별리그 통과부터 걱정해야 했다. 대표팀은 2승 1패를 거두고 조 2위로 16강에 진출, 일본을 1-0으로 꺾었다. 세네갈을 승부차기 끝에 3-2로 이겨 36년 만에 '멕시코 4강 신화'를 재현



지난 7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생명과 평화를 뜻하는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했으며, 에콰도르마저 1-0으로 꺾고 처음으로 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이강인(2골 4도움)은 아시아 선수로는 두 번째로 골든볼을 수상했으며 '지시'가 아닌 '이해'로 어린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 정정웅 감독의 리더십도 주목받았다.

4 빙상·유도계 성폭력 파문

1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면서 한국 체육계는 충격으로 2019년을 시작했다. 조 전 코치는 이미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심석희는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어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24)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도부 코치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로 인해 성폭력·폭행 등 인권 문제가 만연함을 알면서도 감추고, 숨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이 계속 체육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한 체육계 민낯이 드러났다. 정부, 대한체육회는 뒤늦게 사태 조사·대처 마련에 나섰다. 문체부 등 3개 부처는 가해자 처벌 강화, 합숙 훈련 점진적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5 호날두, 친선경기 '노쇼' 공분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올해 여름 소속팀 유벤투스(이탈리아)와 한국 K리그 선발팀의 친선경기에 '노쇼' 해 축구팬의 공분을 샀다. 호날두는 경기 전 예정됐던 팬 미팅과 사인회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유벤투스 선수단은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경기가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킥오프 예정 시각을 4분 넘겨서야 도착했다. 무더위 속에 경기가 1시간 가까이 지연됐지만 6만5000여명의 관중들은 선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호날두가 후반전 교체 투입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호날두는 후반전 45분 내내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기대감으로 시작해 분노로 끝난 호날두 방한 친선 경기는 민사 소송·경찰 수사로까지 번졌다. 팬들은 티켓값, 위자료 등을 경기 주회사 데페스타에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으며, 경찰은 데페스타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6 태극낭자들 LPGA 15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리아 시스템'은 2019년 LPGA 투어 32개 대회에서 15승을 합작하며 '홀수 해 맹활약' 행진을 이어갔다. 2015, 2017년 달성한 한국 선수들의 역대 LPGA 투어 한 시즌 최다승 기록과 같으며, 홀수 해마다 LPGA 투어를 한국 선수들의 독무대로 만든 셈이다. 또 LPGA 고진영(24)은 5개 메이저 대회 중 2개(ANA 인스퍼레이션, 에비앙 챔피언십)를 휩쓸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 최초로 상급, 올해의 선수, 평균타수 등 주요 개인 기록 부문 1위를 한 시즌에 석권하기도 했다. 이정은(23)이 신인상을 받으며 LPGA 투어 신인왕은 5년 연속 한국 선수 차지가 됐다. 또 김세영(26)은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 여자 골프 사상 최다 우승 상금인 150만달러(약 17억 6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7 두산, 정규리그·KS 우승

2019년 한국프로야구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마지막 경기의 승자는 모두 두산 베어스였다. 두산은 10월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9회 말 1사 2루에서 타진 박세혁의 끝내기 안타로 6-5로 역전승했다. 또 카움 히어로즈와의 한국시리즈를 4경기 만에 끝내면서 2016년 이후 3년 만에 통합우승까지 완성했다. 두산은 1982, 1995, 2001, 2015, 2016년에 이어 통산 6번째로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김태형 감독은 통합우승의 훈장을 달고 KBO리그 사령탑 사상 최고액인 3년 28억원(계약금 7억 원·연봉 7억원)에 재계약했다.

8 평양 남북 축구 무중계·관중

10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한국과 북한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이상한 경기'로 화제를 낳았다. 홈 팀인 북한이 한국 선수·스태프 등 선수단의 입국만 허용하고 취재진과 응원단은 불허하면서 준비 단계부터 삐걱거렸다. 중계방송에 대해서도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결국 방송 생중계도 무산됐다. 여기에 북한은 특별한 이유 설명 없이 관중을 들이지 않아 '무중계·무관중' 경기를 만들었다. 또 대한축구협회 직원이 이메일로 현장 정보를 전할 예정이었으나 인터넷 연결 상황이 열악해 이마저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아시아축구연맹(AFC)은 11월 평양에서 열린 AFC컵 결승전 장소를 중국 상하이로 바꿔 사실상 북한에 징계성 조치를 내렸다.

9 광주수영대회 성공 개최

2019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가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와 여수 일원에서 열렸다. 이어 8월 5일부터 18일까지는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가 같은 곳에서 개최됐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를 슬

로건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194개국 2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수구, 하이다이빙, 오픈워터 수영 등 6개 종목 76개 세부 경기가 치러졌다. 우리나라는 하이다이빙 제외 5개 종목에서 82명의 선수가 대표팀으로 나섰다. 여자 수구, 오픈워터 수영에서는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이 구성됐다. 다이빙 종목에서 김수지는 여자 1m 스프링보드 동메달을 획득, 한국 다이빙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가 됐다.

10 전북, K리그 7회 우승 타이



프로축구 전북 현대는 2019시즌 K리그1 3연패 달성과 함께 역대 최다 우승(7회) 타이 기록을 쓰며 역대 최강의 팀으로 우뚝 섰다. 마지막 38라운드 경기 전 전북은 울산에 승점 3점 뒤진 2위에 있었다. 울산은 포항과의 최종전에서 비기지만 해도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었으나, 무기력한 경기 끝에 1-4로 무너졌다. 전북은 강원을 1-0으로 제압했다. 전북과 울산의 승점은 79점으로 같아졌으며, 다득점에서 1점 앞선 전북(72득점)이 울산(71득점)을 제치고 역전 우승을 이뤄냈다. 2009년 첫 우승을 차지한 전북은 11시즌 동안 7개의 별을 수집하며 '절대 강자'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번 우승은 조제 모리이스 감독을 영입한 뒤 이런 성과이기도 하다.